



신성장산업 주간모니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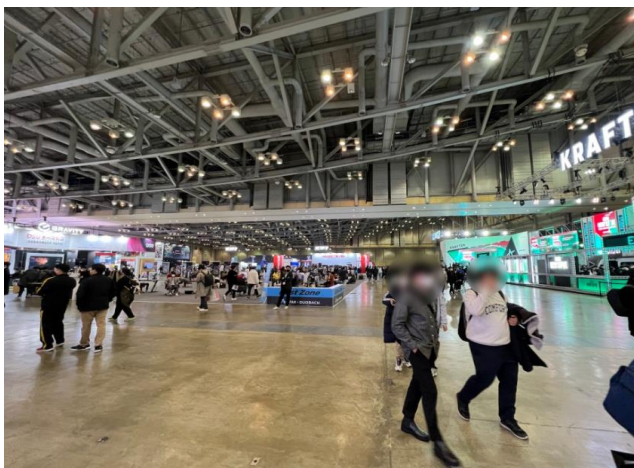
게임 콘텐츠/스몰캡: 이소중, 3773-9953



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로 대형 게임사 다시 부각 전망

- 3년만에 오프라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11월 17일~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정상 개최
- 상반기에 대형 게임사의 신작 모멘텀이 부진해 국내 게임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으나, 이번 지스타를 통해 기대 신작들에 대한 마케팅과 함께 국내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질 것
- 넥슨, 넷마블, 카카오게임즈, 크래프톤 등 대형 게임사 참석 예정이며 메인 스폰서는 위메이드
- 특히 게임사 중 4년만에 참가하는 넥슨이 최대규모인 300 부스로 진행하는 만큼 넥슨이 보유 중인 미공개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
-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국내 대형사들의 게임들을 살펴보면 PC/콘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스타에서 소개될 게임들은 모바일이 아닌 PC/콘솔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음
- 넥슨 ‘프로젝트 매그넘’, 넷마블 ‘오버프라임’, 카카오게임즈 ‘디스테라’, 크래프톤 ‘칼리스트로 프로토콜’ 등 PC/콘솔 신작들이 개발되고 있음
- 한편 아직 참가 확정지 안된 펠어비스와 엔씨소프트의 기대작도 PC/콘솔 기반임

지스타 2021, 코로나19 여파로 낮았던 참여율



자료: 언론보도, SK증권

지스타 2022, 정상 개최 예정



자료: 지스타, SK증권

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